



결혼정보회사 듀오 김혜정 대표이사

- 現 결혼정보회사 듀오 CEO
-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Rutgers 뉴저지주립대(MBA)졸업
-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취득
- 「2011 올해의 CEO대상」 서비스 혁신경영 부문 수상

「올해의 CEO대상」에 선정된 듀오 김혜정 대표이사, 그는 만남과 결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결혼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듀오(www.duo.co.kr)

<Down · Up · Open>

“결혼, DUO(듀오) 마인드 필요하죠”

결혼트렌드 인터뷰

결혼은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 경쟁력도 필요

“결혼이요? 짝신도 짝이 있는 시대는 지났죠.” 듀오(234-7707) 김혜정 CEO가 말한다.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영학석사(MBA), 미국공인회계사(AICPA)를 취득한 엘리트 경영인인 그는 결혼정보회사를 간단하고 합리적인 만남의 채널로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김 대표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에게 결혼 성공 비법으로 3가지 'DUO 마인드'를 제시했다.

▶ **결혼, 조건 내세우기보다 만남 기회 늘려야** = “직업은 한의사, 외모는 가수 이승기처럼 귀여운 남자가 좋아요. 장남보다는 막내가...”

최근 완벽한 조건의 배우자감이나 결혼이상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 미혼남녀가 많다. 김 대표는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성을 조건 위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꼽았다.

김 대표는 “듀오의 경우 활동 중

인 결혼회원 2만 6천여 명이다. 그만큼 만날 수 있는 미혼 상대가 많다”며 “하지만 자신의 이상형 조건에 배우자감을 끼워 맞추려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상대는 현저히 줄어든다. 스스로 만남의 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는 게 좋다”며 “모든 조건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보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한가지 조건을 정하라”고 권했다.

▶ **경쟁력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소개팅도 해보고 맞선도 봤지만 잘 맞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IT직종에 종사하는 박현준(33세,가명)씨는 만남의 실패가 거듭되자 소극적이고 위축이 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그에 맞는 배우자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성적 매력을 높이고 내적 소양도 풍부하게 가꿀 것”을 주문했다.

▶ **결혼적령기, 오픈마인드 가져야 결혼 가능성 높아** = “주변에 그 많은 싱글들이 다 어디로 갔냐” 결혼적령기, 혹은 혼기를 넘긴 미혼남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김 대표는 “듀오 성혼회원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5세 이전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만날 수 있는 이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라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 결혼정보회사, 동호

회 등 믿을 수 있는 만남 채널을 넓히고 결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혼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미혼남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듀오(www.duo.co.kr)는 2만 6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의 대표적 결혼정보회사다. 전국 11개 지사와 미국, 뉴질랜드에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28일 기준 23,170명(결혼예정자 포함)의 결혼남녀 스스로 노력할 필요에 성공했다.

문의 광주 234-7707

리매리칼럼

행복한 재혼,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



*회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듀오 모델 이미지 사용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듀오리매리(234-7707)를 통해 만남을 시작한 한 회원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중학교 영어 교사인 김지영(41세,가명)씨는 가족의 권유로 어렵게 발 걸음을 한 회원이었다. 어땠던 첫 인상을 달리 지금은 한층 밝아진 느낌이다. 김씨는 “마흔이 넘은 지금,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요즘 자꾸 거울을 보게 돼요”라며 “결혼 실패로 두려웠는데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재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발 물러선다는 것이다. 나이도 많은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앞선 생각이 재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듀오는 지난 2002년부터 재혼 전문 서비스 듀오리매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30%가 리매리 회원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실제로 듀오리매리 회원 중에도 처음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다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과 만난 후 오히려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재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재혼은 초혼에 비해 주위의 소개나 만남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생의 통반자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애를 충분히 즐겨보길 바란다. 마흔에도, 오십에도, 육십에도 사랑은 계속 된다. (듀오리매리 김어진 커뮤니케이션) 재혼문의 광주 234-7707

[기업 제휴소식]

듀오, 기업과 공공기관 미팅도 주선



듀오의 제휴를 맺은 기업의 미팅파티 현장 자료 : 듀오(www.duo.co.kr)

“노총각, 노처녀 직원들의 결혼을 독려하고자 단체 미팅파티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듀오(www.duo.co.kr)와 제휴 중인 기업체 복지 담당자의 말이다. 최근 각 기업체에서는 미혼남녀의 단체 가입부터 미팅파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비쁜 업무 일정에 쫓겨 결혼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자, 은행, 금융, 전자, 건설 등 성비불균형이

심한 기업체에서는 임직원들의 결혼 복지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듀오에서도 결혼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체 및 각종 단체와 업무제휴에 적극적이다. 미혼남녀를 위한 각종 미팅진행은 물론, 공동 캠페인 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개최한 미팅파티에서는 듀오가 업체간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과 대기업간의 미팅을 주

선한 이 파티에서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과 오락, 로테이션 미팅, 스탠딩 토크의 자리를 가졌다.

듀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내 직원 미팅이벤트 의뢰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결혼적령기의 직원들을 위한 기업체의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듀오 배충연 광주지사장은 “최근 기업들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직원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라며 “특히 듀오 미팅파티의 경우는 커플성공률이 30%가 넘어 단체 가입 재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장 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 직장인들의 결혼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듀오는 GS칼텍스, LG화학, KT, SK컴즈, 삼성증권, 우리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듀오 제휴문의 062-234-7707

듀오, 미팅파티 개최


듀오 광주지사는 오는 12월 3일 솔로탈출을 꿈꾸는 미혼남녀를 위해 이브닝 미팅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비쁜 업무로 이성과의 만남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를 위한 이벤트로, 커플게임, 일대일대화, 공개 프리포즈 등 다양한 커플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호감을 쌓을 수 있다. 베테랑 파티플래너의 진행으로 토요일 밤의 유쾌한 미팅파티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듀오 홈페이지(www.duo.co.kr)를 참조

△일시: 2011. 12. 3(토)
△문의: 062-234-7707






www.duo.co.kr



당신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아직 인연을 못만났을까요?
고건아마, 신이세상을
너무크게 만들었기 때문일겁니다
어쩌면, 꽤 멀리 있을지 모릅니다
"결혼의 인연"

만나게해듀오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듀오

광주 234-7707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경주·강원·제주·LA·뉴욕